

→ **필 아랫마을**

「사하촌」 김정환

- 핵심 정리

갈래	담편소설, 농민소설	성격	→ 둘째, 포퓰러 등의 이름에서 인물의 순박함, 토착적 문화를 떠올	
			사실적, 저항적, 현실 참여적	
배경	시간 - 1930년대 어느 여름 공간 - 사하촌인 성동리와 보광리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 다양한 관점인물 (호명환씨)

주제	일제 강점기의 부조리한 농촌 현실과 농민들의 저항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의 고수된 현실을 사실적으로 표현함. - 대조적인 처지에 놓인 인물들을 등장시켜 갈등을 드러냄. - 특정한 개인을 주인공으로 내세우지 않고 농민 집단의 모습을 보여 줌. - 농민의 끈질긴 삶을 통해 민중에 대한 작가의 애정이 드러남. - 농민 스스로 현실을 자각하고 지배 계층에 대항하는 주체적 모습이 그려짐. - 지배층의 횡포, 자연 재해로 인한 농민들의 아픔이 절절하게 드러남. - 민족 운동과 사회주의에서 벗어난 소작인들의 저항 방식을 제시함.

- 전체 줄거리

발단	한여름 극심한 가뭄이 들자 성동리 주민들이 곤경에 처함.
* 전개	저수지 물이 트이자 보광리 주민들이 물을 독점하고, 성동리 주민들은 보광사에서 연 기우제에 시주를 하나 비가 올 기미는 보이지 않음. 추석에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 밤을 줄던 상한이라는 아이가 보광사 산지기에 쫓기다 목숨을 잃음.
위기·절정	보광사에서 간평 위원이 나와 성동리 주민들에게 위세를 부리고 돌아가서는 주민들의 눈에 일방적으로 높은 소작료를 매김 / 조합 이사는 밀린 대금의 지불 기한을 연기해 달라는 주민들의 청을 무시함.
* 결말	‘임도차임’을 담해 풀이 죽을 위기에 처한 성동리 남정들은 임류 취소와 소작료 면제를 탄원하기 위해 소작 쟁의에 나섬.

ⓒ 3117 임재연

- 갈등의 양상

보광리 주민	성동리 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광사 종과 그 식솔들 • 일제의 비호를 받으며 농사 조합을 매개로 지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광사의 소작인들 • 보광리 주민들의 압박을 받으며 소작인으로서 과중한 부담을 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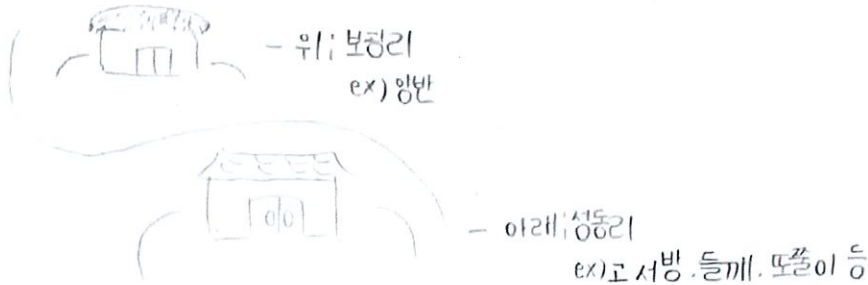
- 가뭄이 극심한 상황에서 저수지의 물을 두고 주민들 간에 다툼이 벌어짐.
- 흉작으로 성동리 주민들의 농사 조합에 진 빚을 감당하지 못하게 됨.

- 1930년대 농촌 현실의 사실적 형상화

- 일제 강점기 농촌의 내부적 모순을 농민들의 편에서 드러냄.
- 순박하고 성실했던 농민들이 오랜 가뭄과 착취에 시달리면서 거진 성격으로 변모해 가는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함.
- 농민들이 개인의 나약함과 이기심에서 벗어나 소작 쟁의라는 집단적인 행동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개연성 있게 보여 줌.

< ^(작가)사하춘 : 절 아래 미혼 > 시간: 1930 / 공간: 보광리 성동리 / 주제: 부조리한 농촌 현실과 저항의지

1. 줄거리



고서방이 물을 대려고하자 양반이 막음.

씨름이 일어나 주재소에 김

이후 거름이 더 심해져 농민들은 살기힘듦. 소작료값을 마련할 시간을 더 달라고 함 → 거칠
(압도차압)까지 당해 처량취소 & 소작료 면제를 위해 보광리로 김
찾는다!

2. 중심사건

성동리 주민들	vs	보광사
논이 없으면		물을 대지 못하게 함,
미래를 살아갈 수		소작료↑
없을만큼 능사가		
중요함.		
↓		
손에 쥔대, 메달대를		
들고 길로 행함.		

3. 인물 소개

(치삼노인)
: 중의 속임수에 넘어가
땅을 잃고, 보광리사람들과
함께 씨름

↓ 이들
(들깨)
: 물꼬를 틀기위해 보광리사람들과
맞섬

(고서방)
: 물꼬를 틀었으므로
주재소에 끌려감.
압도차압이 붙어
야간도주

(이시님)
: 소작료 인히, 기간을
늘려달라는 요청을
거칠

「사하촌」 김정환

〈시대적 배경〉

1930년대는 일제와 결탁한 지주 세력의 횡포가 극에 달하던 때로, 대다수 농민들은 다각적인 착취에 따른 굶주림과 토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사하촌'은 이러한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는 작품이다. 지주 계층에 속한 보광리 주민들은 보광사의 소작인으로 구성된 성동리 주민들에게 소작료를 징수하고 경작권을 좌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조합이라는 제도적 장치를 매개로 농민들을 수탈함으로써 수탈행위를 정당화할 뿐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공고히 하기 위한 직접적인 권력 행사도 서슴지 않는다. 이에 성동리 주민들은 서로에 대한 연대 의식을 바탕으로 부당한 힘에 맞서고자 하는 집단적 움직임을 보인다.

주제	일제 강점기의 부조리한 농촌 현실과 농민들의 저항
갈래	현대소설, 농촌소설, 단편소설
성격	사실적, 현실 참여적, 저항적, 비판적, 고발적
시점	전지적 서술자 시점
배경	공간적 배경: 일제 강점기 소작농들이 모여 사는 농촌마을 시간적 배경: 가뭄이 극심해서 모든 것이 타들어 가는 초여름에서 가을

〈서술상 특징〉

- 한 명의 초점 인물을 통해 서사를 일관되게 진행시키는 것이 아닌 번갈아 가며 다양한 인물들을 초점 인물로 삼아 사건들을 기술하고 있다.
- 주인공이 특정되지 않으며, 보광리 주민들과 성동리 주민들 전체의 모습을 여러 국면에서 보여 주는 데 치중하고 있다.
- 서로 대립 관계에 있는 인물들의 행동을 묘사하여 각각의 처지를 대비하고 있다. (성동리 농민들과 보광리 사람들은 서로 대립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성동리 농민들은 땅에 주저앉고 보광리 사람들은 바쁘게 물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물을 확보한 이들과 그렇지 못한 이들의 처지가 서로 대비되어 드러난다.)

발단	한여름 극심한 가뭄이 들자 성동리 주민들이 곤경에 처한다.
전개	저수지 물이 트이자 보광리 주민들이 물을 독점하고, 성동리 주민들은 보광사에서 연 기우제에 시주를 하나 <u>효험</u> 을 보지 못한다. 추석에 밤을 줍던 아이가 보광사 산지기에게 쫓기다가 목숨을 잃는다. *효험: 어떤 작용의 결과, 앞의 좋은 보람
위기, 절정	보광사에서 간평 위원이 나와 성동리 주민들에게 위세를 부리고 돌아가서는, 소작료를 일방적으로 높게 책정해 버린다
결말	성동리 주민 몇 명이 보광사 농사 조합에 대표로 가서 빛의 상환 기한을 연기해 달라고 청하지만 거절당한다. 주민들이 '입도차압'을 당해 생계를 이어갈 수 없게 되자 남정들 전체가 소작 쟁의에 나선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목적을 설정하였다. 첫째,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음료 선택 기준〉

시대: 일제 감정기

갈래: 단편 소설, 농민 소설

등장인물:

보광리(지주)

한 양반, 이시봉, 이사님



갈등 · 대립 관계

성동리(소작농)

고 서방(곰보), 농민들 (또줄이, 들개, 철한이, 봉구 등)

특징: 외적 갈등이 주로 다루어짐. 주인공보다 농촌 사람들 전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데 주력함.

1

고 서방이 물꼬를 터놓자, 한 양반이 제지하며 갈등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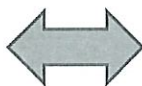
2

고 서방이 한 양반에게 반격하려 하자, 보광리 사람들이 몰려와 집단적으로 폭행함. 보광리 사람들이 주재소에 고 서방을 데려가려 하자 무서워서 잘못을 빌게 됨.

3

대비되는 성동리 · 보광리 사람들의 처지

저수지의 물은 그에 끊어졌다...
...말도 욕도 아니 나오고, 그만
그곳에 주저 앉았다.



사람들은 제 논 물이 행여 아랫논으로
넘어 흐를세라 돌우어 둔 물꼬와, 논두렁
낮은 째를 한층 더 단단히 단속하느라고
몹시 바빴다.

4

보광사에서는 흥작임에도 이전과 같은 소작료를 요구, 성동리 사람들이 선처를 호소하나 이사님에게 거절당함. 논에는 '압도차압'이라는 팻말이 붙고 고 서방은 야반도주함.

↳ 갈등이 고조되는 소재

5

농민들이 차압 취소와 탄원로 면제를 탄원하러 보광사로 향함.

유아독존(唯我獨尊): 이 세상에 나보다 존귀한 사람은 없다는 말.
또는 자기만 잘 낚다고 자부하는 독선적인 태도의 비유
=天上天下唯我獨尊(천상천하유아독존)

하다가 고 서방은 자기 말이 너무나 약한 것을 깨닫고 한 마디 더 보태었다.
→전지적 작가시점임을 알 수 있음.

“이 똥— 개 같은 똥! 아무리 세상이 뒤바뀌어졌기로 서니…….”
→비속어 사용으로 현실감을 더함.

보광사 소작인 해마다 소작료와 또 소작료 매 석에 대해서 너 되씩이나
되는 조합비와, 비료 대금과 그것에 따른 이자를 바쳐야만 되었다. 그리고
비료 대금 갚는 기한이 해마다 호세와 같았다.
→부당함을 드러내는 소재



주재소: 일제 강점기에, 순사가 머무르면서
사무를 맡아보던 경찰의 말단 기관
강압적이고 부조리한 수단,
고 서방을 무력하게 만드는 수단
시대적 배경

사하촌 해설

3404 김수린

1.표현론적 관점

(1) 작가

김정한. 호는 요산 (樂山). 경남 동래 출생.

대표작 - 사하촌, 모래톱 이야기, 수라도, 인간단지 등

특징 - 역사를 과거의 일로만 묻어버리지 않고 현재와 긴밀한 관련을 맺어보려 함.

- 전통적인 것, 토속적인 것을 강조함.
- 독자의 기준을 도시의 지식층보다 농촌 출신의 청년들에게 둠.
- 농촌 생활에 밀착되어 있는 순수한 우리말들을 많이 씀.

2.반영론적 관점

(1) 시대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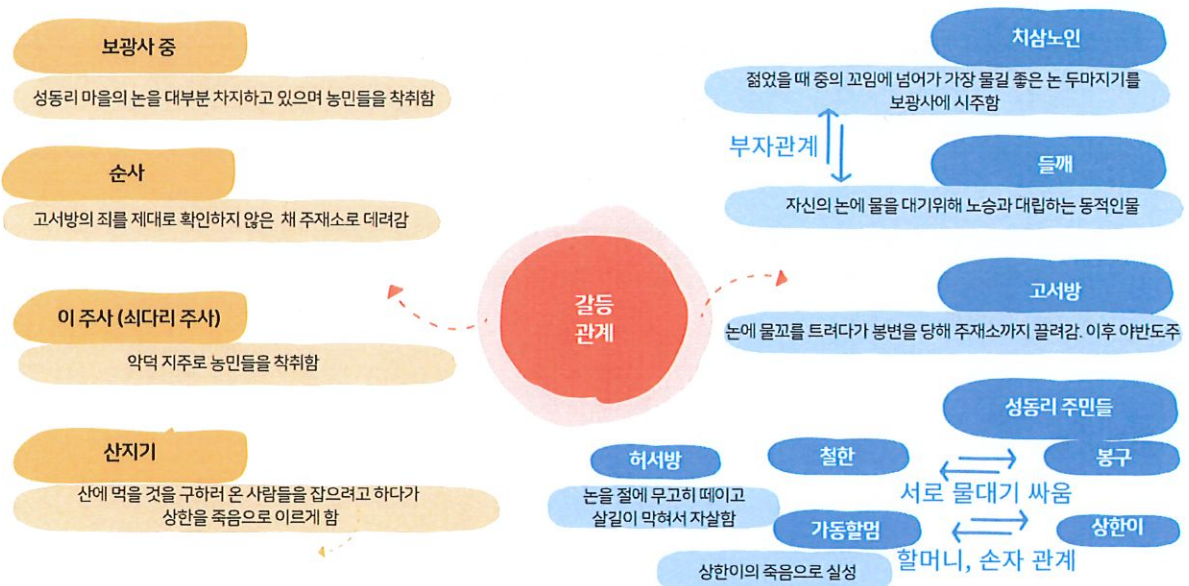
1936년 조선과 일본의 일체화를 주장하는 일제의 황국신민화 정책이 시작되던 시기

(2) 공간적 배경

일제 시대의 성동리 마을

3.절대론적 관점

(1)등장인물



(2) 줄거리

- 발단 - 흑심한 가뭄으로 인한 성동리 주민들의 삶은 궁핍해짐.
- 전개 - 가뭄과 지주들의 횡포로 인한 농민들끼리는 물대기 싸움이 일어나고 지주와 소장농 사이의 갈등이 심해짐.
- 위기 - 먹을 것이 부족했던 농민들이 산에 버섯을 따러 올라가고 산지기에 쫓기던 중 상한이가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게 됨.

고서방이 자신의 눈에 물꼬를 트려다가 봉변을 당하고 남의 논두렁을 잘랐다는 죄목으로 주재소에 잡혀가 몇 달간 고생을 한 후 풀려남

- 절정 - 고서방의 눈이 차압되고 고서방은 가족들과 함께 야간 도주를 함
농민들은 이리다 목숨을 잃을 수 있겠다는 위기 의식을 느끼고 불만이 고조됨.
- 결말 - 농민들은 차압 취소와 소작료 면제를 위해 단체 소작 쟁의를 일으킴
아낙네들이 남정네들을 떠나보내며 걱정함

(3) 표현상 특징

- 진지하고 사실적이며 무거운 분위기의 문체를 구사
- 착취당하는 농촌 현실을 가뭄이라는 상징적인 단어로 표현
- 3인칭 전지적 시점

4. 효용론적 관점

(1) 주제

일제하의 피폐한 농촌 현실과 사하촌 사람들의 가난한 삶
모순된 농촌 현실에서 수탈로 고통당하는 농민들의 모습과 현실 극복 의지

(2) 의의

갈등의 층위를 복합적으로 구조화하여 사회 비판 의식을 강화
일제 시대 농촌 현실에 밀착된 인물과 사건을 형상화하여 어느 작가보다도 생동감 있게 그려냄

<사하촌> 김정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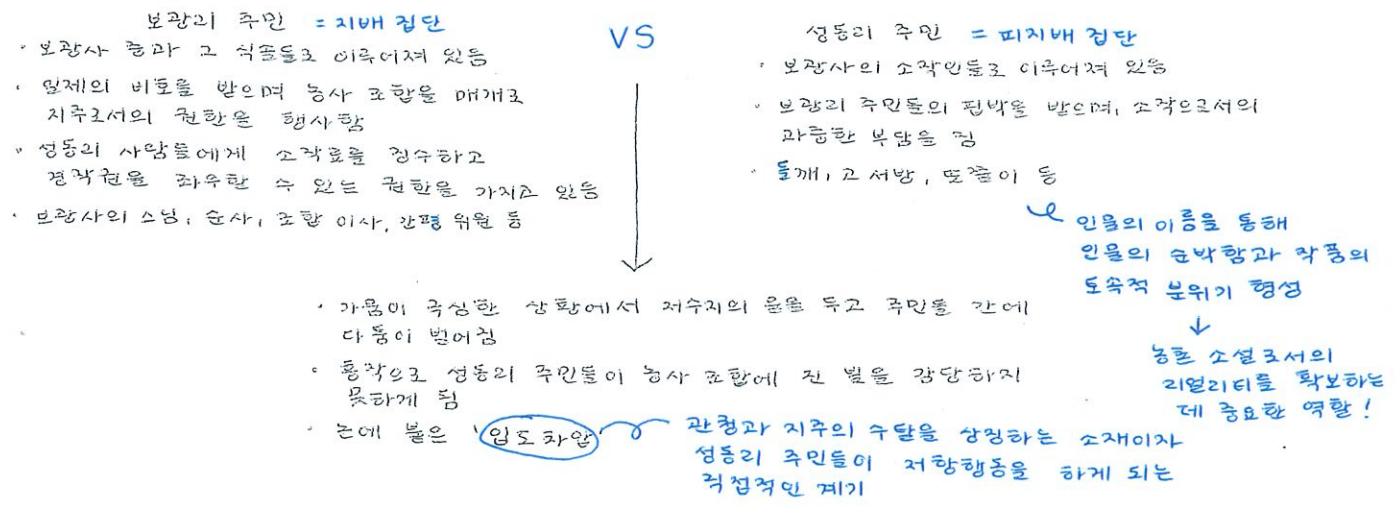
결 아래에 있는 마을

- ✓ **장르**: 단편소설, 농촌소설
- ✓ **성격**: 사실적, 현실 참여적, 저항적, 상징적
- ✓ **배경**
 - 시간적 배경: 1930년대 가뭄이 극심해서 모든 것이 타들어 가는 어느 포여름
 - 공간적 배경: 사하촌인 성동리와 보광리
- ✓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 ✓ **주제**: 일제강점기의 부조리한 농촌 현실과 농민들의 저항 의지
- ✓ **특징**:
 1. 특별한 주인공 없이 보광리와 성동리 사람들 전체의 모습을 보여줌
 2. 사실주의적 수법으로 농민들의 삶과 저항의식을 묘사함
 3. 특정 개인을 중심으로 한 갈등 구조가 아닌 집단 대 집단 간의 갈등관계로 이루어져 있음
 4. 열린 결말로 독자의 생각을 이끌어냄
 5. 진지하고 사실적이며 묵직한 분위기

1930년대 농촌의 현실

- '공출미'라는 이름으로 일본 정부에 할애했던 쌀을 빼앗김
- 일제와 결탁한 지주 세력의 횡포가 극에 달하던 때로 대다수 농민들은 학살에 따른 굶주림과 토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 속에서 살아갈 수 밖에 없었음

/ 갈등의 양상



✓ **해결양상**

→ 성동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현실을 자각하고 지배집단에 맞섬

✓ **전개 과정**

발단 - 한여름 극심한 가뭄이 돌아 성동리 주민들이 곤경에 처한다.

전개 - 저수지 물이 토이자 보광리 주민들이 물을 독점하고, 성동리 주민들은 보광사에서 연 기우제에 시주할 하나 헌금을 보지 못한다.

위기, 절정 - 보광사에서 간평 위원이 나와 성동리 주민들에게 위세를 부리고 돌아가서는 소작료를 원방적으로 높게 책정해 버린다.

결말 - 성동리 주민 몇 명이 보광사 농사 조항에 대표로 가서 별의 상환 기한을 연기해 달라고 청하지만 거절당한다. 성동리 주민들은 자양 취소와 소작료 면제를 단원하기 위해 빈팔단을 들고 소작 행위에 나선다.

✓ 사하촌의 반어적 의미

1. '사하촌'이란 '결 아래에 있는 마을'로 다른 마을보다 부처님의 덕을 입어 평화와 안식의 장소
2. 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주로서 횡포를 부리는 바깥에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된 마을

